

전남 농식품 수출 1조 전망... 'K-푸드' 열풍 이끈다

가루쌀고구마빵 등 호주 수출길 김, 인기 선도...고추장·미역 등도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 운영 "농식품업체 협업으로 수출 확대"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올해 처음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K-푸드' 제품들도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를 통해 해남 가루쌀고구마빵 등 지역특화 농식품 37개 품목 총 13.2톤을 호주에 수출했다.

이번 수출 품목은 가루쌀고구마빵, 감자 쌀빵, 꿀고구마말랭이, 군고구마스틱, 찹쌀약과, 오란다세트, 시래기잡곡밥, 취나물밥, 쌀, 김 등으로 호주 시드니 한인마켓에 입점돼 소비자에게 유통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가루쌀고구마빵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가루쌀과 고구마 소비 확대를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해남 농업회사법인인더라이스㈜에 기술이전을 거쳐 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와 함께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농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하게 됐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호주, 유럽,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K-푸드의 반응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전남도농수산물수출협회를 통해 해남 가루쌀고구마빵 등 지역특화 농식품 37개 품목 총 13.2톤을 호주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이 좋다"며 "도내 여성 및 청년 벤처 농업인과 소규모 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품목 발굴, 제품개발 및 현지 바이어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인더라이스㈜ 장순이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의 기술이전 덕분에

가루쌀고구마빵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남 K-푸드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 수출 확대 아래 지속 확대되고 있다. 김은 농수산

물이 수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 품목 1위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힘입어 밥과 고추장, 미역 등 수출액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쌀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2857만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2417만 달러를 기록했던 2023년 수출액을 가법

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인기로 전남도는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한 전남쌀 수출에 본격 나서는 등 수출 1000톤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곡성 석곡농협의 대표 브랜드쌀인 '백세미'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총 50톤 규모를 베트남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국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태국, 영국, 필리핀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수출되고 있는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 또한 동기간 기준 수출액 425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359만 달러였던 전년동기간대비 18.6%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7월 기준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4억6700만 달러로 약 618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간대비 1억200만달러(1351억 원) 늘어났다. 이에 전남도는 두바이, 말레이시아, 미국 등 전세계 13개국에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도내 농식품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수출국에 맞는 판매기술을 적용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광주호 호수생태원서 인생사진 찍어요"

8천㎡ 규모 구절초 군락지 만개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구절초가 만개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북구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조성된 8000㎡ 규모 군락지에 구절초가 만개,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개화시기가 늦어진 호수생태원 구절초는 최근 서늘한 날씨로 만개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에는 가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진 구절초를 비롯해 국화, 메리골드, 천일홍, 페튜니아, 사루비아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꽃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에는 수목 6만5000주, 초화류 18만7000본을 비롯해 생태습

지, 자연관찰대, 구절초 동산 등 테마별 단지를 갖추고 있다.

봄철에는 수선화·노랑꽃장포, 여름철 금사매·수련, 가을철 꽃무릇·구절초 등 다양한 초화류들이 식재돼 계절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또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버드나무 군락지, 습지 등 다양한 동·식물 생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이나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대표적 테마 시설인 황지해 작가의 '고요한 시간-DMZ금지된 화원'과 '해우소-마음을 비우는 곳'이 정비돼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정원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용만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추억으로 간직할 인생사진을 찍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18~20일 김치축제로 '안전캠페인'

광주시는 18~20일 김치축제가 열리는 시청 야외광장에서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행사장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 차량 우회전 방법 △전동킥보드 헬멧 사용 및 1인 탑승 등 이용수칙 △안전산행을 위한 준비 및 주의사항 △축제·행사 안전거리 유지 등 일상 속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을 알리고, 시민이 쉽고 안전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퀴즈 풀이를 진행한다.

18일과 19일 시청 1층 어린이 안전 체험관에서는 4~12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화재대피, 지하철안전 등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안전정책관은 "일상의 안전 실천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행복의 기초가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를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형 공적개발원조사업 '아시아 문화탐험대' 성료

6개 도시 청년예술가 60명 참여 문화·교육교류 확산 '지속가능성'

광주시의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아시아문화탐험대'가 참가도시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

특히 올해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짧은 기간에도 해외 참가 도시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문화·교육 교류로 확산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예고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한국), 난양(중국), 치앙마이(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창화(대만) 등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 60여명이 참여한 '2024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아시아문화탐험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일원에서 활동했다.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아시아 6개 도시 청년예술가들이 광주와 지산2동 마을특색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고, 청년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작품을 그렸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도시樂·락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아시아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전통무술, 전통인형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해외 6개 참여 도시들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로 교류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예술 프로젝트 현지 실행이었던 중국 난양시의 난양사범대는 이번 교류에서 광주대를 찾아 학술·교육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 치앙마이를 비롯한 다른 참가 도시들도 대학 간 지속적 교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자카르타, 창화 등도 광주의 도시재생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청년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공정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새로운 협력의 창조물이 남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문화탐험대 프로젝트가 각 나라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백년가게 등 18개 업체 선정 포장패키지 등 전략수립 지원

전남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차별화를 위한 소상공인 상품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력의 제조업체, 백년가게, 기술숙련자(명장·명인)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상품가로, 자신만의 브랜드·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

지 소상공인 및 상품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2개 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리뉴얼 브랜드 9개 업체, 신규 브랜드 9개 업체, 총 18개 지원 업체를 선정, 업체당 2400만원에서 최대 27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과 4일에는 '2024년 소상공인 및 상품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 지원기업 대표와 디자인 수행기업 및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원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 업체와 자문위원 간의 견 및 방향성도 공유했다.

오는 11월에는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진행, 지원 업체의 브랜드·디자인(BICI) 및 제품 포장패키지 등 과업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원 업체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 발전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